두 종류의 ‘가만히 있기’

(출14:15~31)

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3.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두 종류의 가만히 있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두 종류의 가만히 있기’
어제 본 13-14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샌드위치 위기대처의 기본자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기본자세만 취할 수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앞뒤로 나를 밀어붙이는 위기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선민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끄심이 우리 눈에 목도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가만히 있기의 결과로 선민 200만 모두가 가만히 서서 보는 가운데, 전무후무한 엄청난 규모의 하나님의 활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규모에 비하면 새 발의 피지만,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되어 서 있는 상태가 되고 마른 바닥을 건너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와, 이스라엘 선민을 죽이려고 쫓아온 군대는 벽처럼 서 있던 물이 합쳐지며 빠져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가만히 있기를 통해서 경험된 일이었으므로, 이 가만히 있기를 일상화하기 위해 몸에 익히고 마음에 익혀서 계속 반복해야 하는 삶의 기본자세입니다.

이 홍해 바다에서처럼 역시 바다에서 들려온 “가만히 있어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아닌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에 탄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지시를 따른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세월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의 요청을 따라서 가만히 있었으므로 우리의 자녀들과 동포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안심을 유도하는 이 세상 안에서 들려오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선민이 가만히 있게 되어 나타나는 일이 홍해의 기적과 애굽 군대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빚어내어 선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이 세상 안에서 들려오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결과는 세월호와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가만히 있기의 대표적인 두 종류가 있는데, 기독교의 기도와 불교나 힌두교 등의 동양 종교에서의 명상(冥想)입니다.
먼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마음이 세상에 묶여있는 상태로 세상 문제에 묶여있고, 이루고 싶은 소원에 묶여있고, 꿈과 비전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참 선민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선민 전체의 그룹인 공교회에 속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세상에 마음이 얽매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활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활동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이런 상황처럼 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의 어떤 대상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드림으로써, 내 눈앞에 펼쳐지고 내 귀에 들려오는 이 땅 위에서의 급박한 현실에서 마음을 빼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만히 있기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요, 홍해에서 말씀하시는 가만히 있기의 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만히 있기의 내용이고 기도라면 명상은 어떤 것입니까?
명상의 정의를 상식적인 선에서 해보자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아무런 왜곡이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로 되돌아가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생기는 이유를 불교에서는 고집(苦執)이라고 하는데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 세상일에 나쁜 마음으로 집착을 하여 원망, 불평, 복수심, 시기심이 생기든, 좋은 마음으로 집착을 하여 소원을 갖고 이루려고 하고 멋진 사람이 되려는 모든 집착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기가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매여서 끌려가는 상태가 인간의 활동인데,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집착되고 얽매여있는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위한 실천적 행동지침이 바로 명상이고, 명상을 통해서 얽매임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홍해가 있고 애굽 군대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얽매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반응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들보다 더 먼저 계시고 더 크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다시 말하면 얽매임 자체를 완전히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 완전히 얽매이기 위해서 가만히 있기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동양 종교의 명상의 경우에는 외부상황으로부터 풀어져서 자기 내면의 세계에 머무르고 이 외부의 세계는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공(空)'이라는 사상으로 색즉공(色卽空),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내 마음 안에는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는 세월호로 돌아가서 불교의 명상에 대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세월호는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월호라는 상황 자체를 내 마음에서 공(空)이라고 생각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에서 평정심을 찾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월호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패닉상태가 되어도 바다에 빠지는 것이고, 그 외부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에 평정심을 찾고 있어도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말할 때에 결국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선장의 명령을 따라 방송으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가만히 있기는 마음이 이 땅의 상황에 얽매인 상황에서 빠져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빠져 나와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마음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으로, 홍해 바다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요청과 진도 앞바다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요청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은 맞지만, 동양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격적으로 계시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과 목적성이 없는 맹목적인 얽매임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게 되고, 이 맹목적인 해방이 전부인 줄로만 알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외부상황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았다고 해도 얽매여있는 것이고 왜곡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일상적으로 생활화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십자가와 주기도문을 연합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기의 기본자세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 깨달은 바대로 가만히 있기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근거로 한 주기도문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십자가를 생활화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가만히 있기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가 이렇게 일상화 되면서 가만히 있기가 실천 될 때에, 홍해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등장과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갈2: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는 말씀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가만히 있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할 때에 요14:9-10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고 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주님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고 아버지가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이 가만히 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주기도문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 지으면서 우리의 가만히 있기의 특징을 살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할 때에 장난삼아 함부로 거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만, 이것을 넘어서서 먼저 내 마음 안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으며 무엇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 절묘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기도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거나, 일이 바쁜 중에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중에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스럽게 여겨지는 성전이나 기도원이나 숲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내 뒷골목에서 자리 잡고 기도하더라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남은 상태가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이 모든 세상은 이름을 통해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사업, 내 장사, 거래처의 김 과장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켰을 때에 윈도우에 아이콘들이 있고, 그것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내가 관계하는 존재들이 내 마음에 직접 다 들어와 있을 수는 없지만, 내가 자식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식이라는 아이콘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오직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분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모든 아이콘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아이콘만 남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에서 모든 아이콘을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불교나 동양 종교의 명상의 과정에서도 마음속에 아이콘을 지우는 과정이 똑같은데 하나님이라는 유일신도 아이콘으로 다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게 다 지우는 것이 불교이고, 이들은 존재를 가리키는 아이콘을 마음에서 다 지우고는 아이콘이 가리켰던 존재까지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과 연결된 아이콘을 지웠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의 경우에는 바탕화면에서 프로그램과 연결된 모든 아이콘을 지운 다음에 프로그램까지 다 지워진 것이라고 보면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空)이라고 보기에, 내 마음은 어디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것이 공(空)이라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실재하는 그 많은 존재들과 연결되기 위한 아이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아이콘으로 실재하는 자식과 만나면 생각하고 있던 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아이콘을 다 지운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내 생각과 판단과 의견과 소원을 죽이는 것으로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불교나 동양 종교의 명상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며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존재는 있으나 아

이콘을 없애놓고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콘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존재 자체를 공(空)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콘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을 남겨둡니다. 오직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남겨져서, 내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이 다 그 하나의 이름으로 집중될 때에, 그 하나님이라는 아이콘이 가리키는 실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이름으로 관계하는 건강이나 자식이나 사업 문제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겨지고 구분된다는 것은 잘라낸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실재하는 것들에 대한 아이콘을 지우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처럼 없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마음에 두기 위해서 아이콘이 가리키는 그 존재들과 대상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홍해에서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가만히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모세가 유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음으로 보는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에 대해서도 눈으로 보아서 마음으로 들어온 아이콘을 지우고 가만히 있습니다.
홍해와 애굽의 군대가 마음에 장애물이라는 아이콘으로 들어오면, 이 아이콘들을 지웠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아이콘만 남는데 그때에 홍해도 애굽 군대도 실재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에 붙들린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명상이라는 것은 세월호의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과 똑같은 것입니다. 현실이 있고 실재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이콘만 지우고 내 마음만 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가라앉는 세월호에서 평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고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평정을 찾아 봐야 가라앉아 죽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세월호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세월호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상은 그 세월호 안에 가만히 있자고 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세월인데 세상 자체가 세월호라는 말과 잘 맞습니다. 이 안에서 평정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책임지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컴퓨터 화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아이콘을 지우고 하나님만을 남기는 것이 이름이 거룩

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남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하늘에 계신 진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아이콘들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만 남았을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는 것이고, 마음에서 아이콘이 가리키던 실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홍해의 기적같이 역사하시듯이 우리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보다는 규모가 작을지 모르고, 나만 느낄 수 있는 일일지는 몰라도 그러한 기적들이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게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를 정확하게 알고 일상화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기를 삶의 모든 동작을 위한 기본자세로 취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가만히 있기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올바른 가만히 있기가 마음과 몸에 숙달되고, 숙달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가만히 있기가 이루어져서 홍해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